

인터뷰

‘직지’ 세계최초 고증한 在佛학자 박병선 박사

외규장각 도서반환 “국민 열망에 놀랐다”

이번 방문은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전문 감독 알랭 뒤아일리 씨의 외규장각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프랑스에서 인터뷰 촬영은 이미 마친 박 박사는 “뒤아일리 씨의 한국 내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맹랑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게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통사 방문은 이날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왕실의 전적(典籍)을 보관하는 사교(史庫)였던 강화도 외규장각을 약탈한 프랑스군을 물리친 전투지인 정족산성과 함께 포함했다.

정족산성 남문을 통해 전등사에 들어선 박 박사는 경내에 가득한 불교문화와 자연에 매료된 눈치였다.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됐다는 느티나무를 향해 “너는 역사를 다 알겠다”며 “역사를 말하는 느티나무”라고 말을 건넸다.

특히 대웅전 밖에 길게 늘어선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원 만등불사’ 플래카드에서 국민의 염원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박사는 “국민의 뜻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가슴이 찢르르 하다”고 말했다.

〈직지〉와 외규장각 도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많은 불이익을 봤던 그로서는 조국에서의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큰 관심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박 박사는 “나는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자로 취급 받고, 한국 판료로부터는 관한 문제를 야기하는 골칫덩이로 인식돼왔다”면서 “하지만 조국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진 바 없었고, 나의 사명을 다 한 것뿐이므로 서운함은 없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조국은 그에게 1999년 은관훈장, 2001년 해외동포상 등을 수여함으로써 한참 뒤늦게야 고마움을 표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무릅쓰고 외규장각 도서를 12년이나 걸려 요약·정리해서 책으로 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까닭에 대해 그는 “〈직지〉든 외규장각 도서든 내가 찾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학자들은 쓸데없는

〈직지〉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임을 고증해내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음을 세상에 알린 재물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76·사진)가 9월 30일 강화도 전등사를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꼼꼼하게 훑은 것은 이번이 처음.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다는 기쁨 때문인지 박 박사에서 피곤한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다큐 제작 답사차 방한한 때 韓-佛 양국서 골칫덩이로 인식 “등가교환 절대 반대”

짓이라며 외면했지만, 병인양요 때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사망명을 갖고 연구했다는 것.

박 박사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 대해 “이제 국가간의 문제가 됐으니 반환되기만을 바랄 뿐이다”고 희망했다. 또 프랑스 소장 아랍문헌의 의뢰와 국내 복본(復本)을 교환하는 방식의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프랑스에 가 있는 외규장각 도서만으로도 안타까운데 무엇을 또 보낸다는 말이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외규장각과 약탈도서 반환문제는 한국과 프랑스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시작은 지난 1978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베르사이유 별관 파손 참고에서 처음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서 반환 문제가 양국간 문화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반환추진은 1991년 10월 서울대학교에서 외무부에 추진을 의뢰, 이듬해 7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1년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국내로 반환하는 대신에 국내에 소장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교환’에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지난 해 현 정권이 재검토를 결정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직지〉에 담긴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몽고침략기에 민생구제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직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나무껍질도 없고, 들에 풀조차도 귀하던 각박한 시기에 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기 위해 〈직지〉를 써낸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박 박사는 청주의 직지축제나 강화도의 삼량성 축제에 대해 〈직지〉와 외규장각도서의 소중한 가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축제가 머물지 말고 점점 확대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0을 바라보는 박 박사는 아직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재 그는 2005년 출간을 목표로 불어판 〈한국사〉를 집필하고 있다. 박익순 기자



중앙신도회, 국회정각회에 죽비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구현해 달라며, 9월 23일 국회 정각법당을 찾아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 의원 30여명에게 <금강경>과 죽비를 전달했다. 이용희(열린우리당), 이상배(한나라당), 박세일(한나라당), 이계진(한나라당), 권성택(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함께한 이날 전달식에서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은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는 정각회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당파를 떠나 화합된 모습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국 불자들의 힘을 응집해 달라”고 말했다. 정각회 이용희 회장은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마음을 함께 상생의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방송 뉴스프로 강화

11일 가을개편... ‘문화공감-상상’ 등 신설

대입구조를 극복하고 감동을 아우르는 방송, 사회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송을 목표로 불교방송이 10월 11일자로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매일 새벽 5시 50분 능인선원 지광 스님이 진행하는 ‘지광 스님의 지혜의 길’은 부처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불자들을 찾아간다. 저녁 6시 15분에는 각계각층의 해설위원을 위촉해 불교방송만의 색깔을 띠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몽고침략기에 민생구제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직지〉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나무껍질도 없고, 들에 풀조차도 귀하던 각박한 시기에 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하기 위해 〈직지〉를 써낸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인가요.”

의 소식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이 시대 최고의 유행 유행은 일요일 오후 5시 10분 ‘아름다운 삶, 좋은 만남’ 코너에서 진지하게 고민한다. 트로트가수 박진선 씨가 진행하는 ‘박진선의 트롯시대’는 최근길 직장인들이 듣기 편한 노래들을 선곡해 매일 저녁 7시에 찾아간다. 민요전문가 김연갑 씨가 진행할 ‘삶의 노래’는 근현대에 일어났던 일을 그 시대의 노래로 재조명하는 코너이다.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청소년을 위한 ‘Music N 유영성입니다’가 신설된다. 푸른하늘의 가수이자 작곡가 유영성 씨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들을 편성해 청소년 취취자와 만나다. 강지연 기자

소쩍새마을 안명훈씨

장애인올림픽 금메달



입으로 종이화 접기로 유명한 소쩍새마을 안명훈(25·뇌성마비 1급 장애인·사진) 씨가 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들만 출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을 굴러 점수를 내는 경기. 동계스포츠인 컬링과 비슷하다.

안 선수가 보치아를 만난 것은 지난 1998년부터. 소쩍새마을에 입소해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운 보치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한 것이다. 이 경기에 재능을 보인 안 선수는 시작한 지 1년만인 1999년 전국 뇌성마비장애인 보치아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2002년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2004년 장애인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원주시는 “한국과 강원도의 명예를 높인 안명훈의 쾌거를 기념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환영행사를 10월 13일 이전까지 대체활동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강의석 군 ‘예배선택권’ 얻어

학교와 합의...46일 단식 끝내

강제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단식투쟁을 벌였던 강의석 군(서울 대광고 3년)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 학생회장을 지낸 강의석 군은 9월 25일 학교측과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의 자율권을 준다’는데 합의, 단식을 풀었다. 교내 방송을 통해 학내 종교자유를 선언한 지 101일만이다. 46일간의 단식을 끈 강 군은 “그 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종교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공간인 ‘미션스쿨 종교자유’(cafe.daum.net/wdhrytk

fkcl)에는 강군에 대한 축하와 건강을 비는 글이 이어졌으며, 강군을 지지해 온 시민사회 단체들도 환영 뜻을 밝혔다. 한편 대광고는 12명의 교사들로 이뤄진 ‘기독교 교육문제 대책위원회’를 열고 △예배 거부 학생들에 대한 대체활동 계획을 재단·교단·기독교학교연합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대체활동 마련 전까지는 담임교사·교목실·학부모의 상담과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예배가 있는 10월 13일 이전까지 대체활동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인성교육 동영상 CD 경기도내 종교교에 배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동영상 CD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교장 이근우)에서 제작됐다. 청담고 창업보육센터가 기획 제작한 ‘날마다 한 생각’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게 구성된 동영상과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의 글자가 김정빈

청호 불교복지문화연구소 15일 사회복지학술세미나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소장 김용택)는 10월 15일 오후 2~4시 세종문화회관 4층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흥봉 前 보

건복지부 장관이 ‘한국고령자복지 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선우 덕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요양정책’, 이재모 교수(대구가톨릭대)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조성희 교수(순천향대)가 ‘호스피스 활동’, 장창호 교수(일본 시즈오카복지대)가 ‘케어매니지먼트’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02)517-3045 김철우 기자

불기 2548년 조계사 창건기념 행사안내. 조계사 창건일: 10월 16일(토, 음 9.3) 창건기념주간: 10월 10일(일) ~ 17일(일) 8일간. 제3회 회화나무음악회, 조계종 영산대재,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창건기념 바자회, 가족뮤지컬 '오세암', 입재식, 조계사 청년회 설법대회,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조계사 신도경연대회, 한마음 대동제, 조계사 사진동호회 전시회.

